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²³⁾

이 용 화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990년대 舊소련 붕괴를 계기로 북·러 경협은 약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시기별 양국 간 경제협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냉전기(1946~1989년)의 양국 간 경제협력은 舊소련의 차관 중심 對北 경제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舊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총 3억 2,500만 달러의 무상원조(1953~1960년)를 비롯해 1989년까지 총 24억 달러에 달했다. 체제 전환기(1990~1999년)에는 舊소련 붕괴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 경색기라 할 수 있다. 1990년 약 13억 달러에 달하던 북·소 간 교역은 1991년 3억 6,500만 달러로 급감, 1999년에는 5,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시장경제 시험기(2000~현재)에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과 극동 러시아의 교역 증가가 북·러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강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의 對 러시아 경험정책은 북한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둘째, 러시아의 對 북한 경험정책은 극동 러시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경제·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종합적으로 볼 때 북·러 경협은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 개발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선 의도가 맞물려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북·러 3국 협력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일 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잘 활용한다면 동 이니셔티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북·러 경제협력을 비롯해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러 3국 협력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메커니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러 3국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제도 혹은 협정을 3국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지나친 對 러시아 의존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23)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에서 2014년 7월 2일 발간한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VIP REPORT』를 수정·보완한 것임.

새로운 전기를 마련 중인 북·러 경제협력

1990년대 舊소련 붕괴를 계기로 약화되었던 북·러 경제협력이 최근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러 양국 간 교역 뿐 아니라 교통·물류, 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쳐 경제 협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3년 북·러 교역은 전년 대비 37.3% 증가한 1억 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양국은 2020년 교역액 1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러시아는 경협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舊소련 부채 90%를 탕감했고, 나머지 10%는 한국과 연결되는 가스관·철도선 건설에 필요한 대지 임차를 북한에 요구했다. 특히 철도 부문은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및 TSR-TKR 기반구축에, 에너지 부문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러 경제협력의 시기별 특징 분석을 통해 향후 북·러 경협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러 경협 확대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²⁴⁾ 정책과도 연관성이 큰 만큼, 양국 간 경협 추세 변화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013년 북한의 5대 무역국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총교역		증감률
		2012	2013	
1	중국	6,012	6,547	8.9
2	러시아	75.9	104.2	37.3
3	인도	75.8	97.9	29.1
4	태국	62.0	95.6	54.0
5	싱가포르	48.7	60.8	24.8

자료 : KOTRA, 『2013년 북한의 대외무역』.

〈 최근 북·러 간 주요 경제협력 내용 〉

시 기	주요내용
2013.9	- 북·러, ‘나진-하산 철도연결’ 재개통
2014.2	- 북, 나진항 확대 등 러시아와 경협 강조
2014.3	- 러, 극동개발부 장관 경협 논의차 방북
2014.4	- 러, 부총리 방북 (소방차 20대 기증)
2014.5	- 러, 푸틴 대통령 북한 부채 탕감 결정
2014.5	- 북·러, ‘나진-하산 철도연결’ 재개통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2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는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하고,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하자는 방안임.

북한과 러시아의 시기별 경제협력 과정

최근 북·러 양국은 경제적 실리에 기반한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변화는 시기별 경제협력 특징을 중심으로 냉전기(1946~1989년), 체제 전환기(1990~1999년), 시장경제 시험기(2000~현재)로 구분될 수 있다.

〈 북·러 경제협력의 시기별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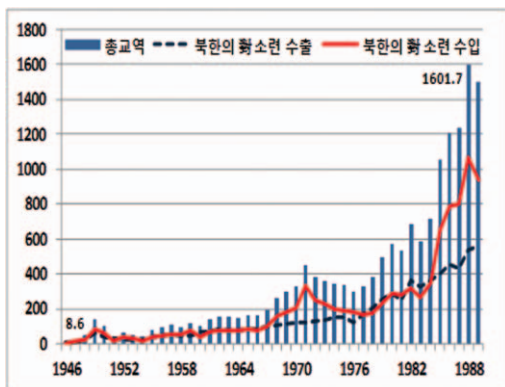
시 기	주요 내용
냉전기 (1946~198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 경제지원 중심의 북·소 경제협력 확대기 • (교역) 1946년 약 960만 달러→ 1988년 약 10억 달러 ※ 1988년 북한의 총 교역 중 對소련이 49%를 차지, 舊소련의 주요 수출은 기계류임 • (원조) 1953~1989년 舊소련의 對北 차관 총 24억 달러 ※ 1953~1960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對北 무상원조 가운데 舊소련이 33% 차지
체제 전환기 (1990~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舊소련 붕괴 : 양국 간 경제협력 경색 • (교역) 1990년 13억 달러→ 1999년 5,600만 달러
시장경제 시험기 (200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1,2기(2000~2008년) : 경제협력 중심 관계 개선 모색 • (교역) 2000년 4,600만 달러 → 2005년 2억 3,000만 달러 → 2010년 9,900만 달러 • (투자) 2000년 10만 달러→ 2005년 20만 달러→ 2010년 200만 달러 ※ 단, 양국 간 관계 회복 노력은 2006년 북핵 1차 실험 후 급격히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3기(2012~현재) : 극동 러시아 중심 경제협력 확대 • (교역) 2012년 7,600만 달러→ 2013년 1억 400만 달러 ※ 극동러시아 교역 비중 : 2009년 약 10.0%→ 2013년 약 23.1% • (투자) 2012년 100만 달러→ 2013년 9월 5,700만 달러 • (교통) 2013년 나진-하산 철로 재개통, 러시아에 나진항 3호 부두 제공 • (농업) 극동 러시아(연해주, 아무르) 중심 농업 협력 확대 • (노동) 2013년 9월 기준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2만 2,000여명 기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첫째, 냉전기(1946~1989년)에는 對北 경제지원 중심의 북·소 경제협력 강화가 특징적이다. 舊소련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교역을 비롯해, 유·무상 원조, 기술 등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북·소는 군사적으로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군사동맹관계로 격상했다.

교역에 있어서 냉전시기 동안 북한은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계류 수입을 중심으로 舊소련과 교역을 추진하였다. 1946년 북·소 간 총 교역은 860만 루블(약 960만 달러, 50년대 평균 환율 1:1.12 적용)에 불과했지만, 1988년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약 16억 루블(약 10억 달러, 80년대 평균 환율 1:0.63 적용)을 기록하는 등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다. 1970년대 중반 북한의 대서방 외교 강화로 북·소 교역은 감소했지만, 1976년 향후 5년 간 양국의 상품거래를 40%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냉전시기 동안 북한의 교역은 舊소련에 편중되어 왔으며, 1988년에는 북한의 총 대외무역 가운데 49.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냉전시기 동안 북한의 대 소련 수입 비중은 197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50% 수준을 유지했으며, 1988년에는 전체 수입의 약 60%를 기록했다.

〈 냉전시기 북·소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 루블) 〈 북한의 총 교역 가운데 舊소련의 비중 〉 (단위 : %)



자료 : USSR Foreign Trade Statistical Data, <http://src-h.slav.hokudai.ac.jp/database>.

		1965	1975	1985	1988
수출	舊 소련	38.7	30.1	31.0	36.2
	자본주의국가	18.2	25.3	25.0	24.2
수입	舊 소련	56.3	24.8	44.7	59.7
	자본주의국가	11.6	41.6	20.0	15.2
총 교역	舊 소련	47.6	27.0	38.2	49.0
	자본주의국가	14.7	35.1	22.0	19.2

자료 : 조명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 경협에 주는 시사점』, p.29 재구성.

냉전시기 舊소련의 對 북한 수출은 기계류 중심으로 북한산업의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50년부터 舊소련은 북한의 산업 재건을 위해 기계류에 대한 수출을 강화했고, 1975년의 경우 북한의 수입에서 舊소련제 기계류에 대한 비중이 40.5%에 달했다. 그 밖에도 북한의 수입품목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석유제품, 석탄 등의 산업원자재품목을 비롯해 식량 확보를 위한 곡물 제품 등이었다.

특히 對北 원조에 있어서 舊소련은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對北 유·무상 원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舊소련은 1953~1960년까지 북한에 총 3억 2,5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했다. 한국전쟁 직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총 무상원조액(9억 7,700만 달러) 가운데 33.3%를 舊소련이 부담하였다. 1961년부터 舊소련은 기존의 對北 무상원조를 차관(물자구매 및 투자형태)방식으로 전환, 1989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차관규모는 총 24억 달러에 달했다. 舊소련의 對北 유상차관은 투자형식으로, 주로 공업(제철소, 석유산업, 화학공업, 에너지 산업 개발), 교통 부문에 대한 시설제공 방식으로 투입되었다.

〈 북한의 대외수입에서 舊소련 제품의 비중 〉
(단위 : %)

	1950	1965	1975	1985	1988
1	기계 (15.8)	기계 (32.5)	기계 (40.5)	기계 (21.8)	석유제품 (20.3)
2	후생용품 (6.2)	석유제품 (17.7)	석유제품 (14.3)	석유제품 (18.7)	기계 (12.0)
3	파이프 (1.5)	면사 (9.2)	양곡 (7.9)	석탄 (4.4)	석탄 (7.0)
4	석유제품 (1.1)	양곡 (6.8)	석탄 (3.9)	면사 (2.0)	양곡 (3.3)
5	철합금 (1.1)	타이어 (3.9)	후생용품 (2.3)	직물 (1.7)	면사 (2.2)

자료 : USSR Foreign Trade Statistical Data,
<http://src-h.slav.hokudai.ac.jp/database>.

〈 북한의 무상원조 및 차관 도입 현황 〉
(단위 : 100만 달러)

	舊소련	중국	기타 사회주의국가	소계
1953~ 1960	609.0 (325.0)	459.6 (287.1)	364.9 (364.9)	1,433.5 (977.0)
1961~ 1970	558.3	157.4	159.0	874.7
1971~ 1980	682.1	300.0	-	982.1
1981~ 1989	508.4	500.0	-	1,008.4
합계	2,357.8	1,417	523.9	4,2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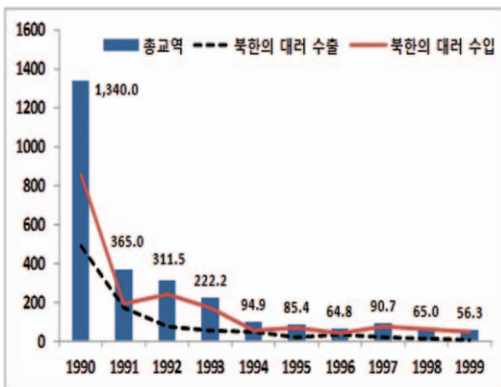
자료 : KDI, 『북한경제지표집』, p.161 재구성.
주 : 1953~1960년 괄호는 무상원조임.

둘째, 체제 전환기(1990~1999년)의 특징은 舊소련 붕괴에 따른 對北 경제협력 경색을 손꼽을 수 있다. 탈냉전 시기 舊소련의 급격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동맹국이면서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던 북·소 경제관계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舊소련 붕괴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크게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舊소련 붕괴로 북한에 대한 원조성 구상무역²⁵⁾이 중단되고, 국제시세에 기초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러 간 교역은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 약 13억 달러에 달하던 북·러 간 교역은 1991년 3억 6,500만 달러로 급락했고, 1999년에는 5,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1990년대 북한의 대러 수입품은 철강, 비료, 원목 등으로 전환된 반면, 기계설비 수입 감소에 따라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품목의 구조변화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수천만 달러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1년 러시아의 북한 기술지원 요청 거부를 비롯해, 북한의 대러 무기수입액 축소 등 사실상 북·러 간 경제교류는 중단되기에 이른다. 북한의 대러 무기 수입액은 1950년대(42억 달러)→1960년대(44억 달러)→1970년대(46억 달러)→1980년대(47억 달러)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대 8억 달러로 크게 감소²⁶⁾하였다.

〈 체제전환기 북·러 간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러시아 통계청(gks.ru), CEIC.

〈 1990년대 북한의 對 러시아 수입 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1994		1996		1998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차량	6.8	철강	10.7	철강	10.3
2	비료	4.3	비료	4.1	비료	4.1
3	철강	2.2	목재	4.1	목재	4.1
4	연료	0.9	연료	3.7	연료	3.7
5	목재	0.8	차량	3.4	차량	3.3

자료 : 러시아 통계청(gks.ru), CEIC.

25) 구상무역이란, 두 나라 간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零)으로 만들고, 결제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임.

26) 1990년 고정가격 기준임.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4.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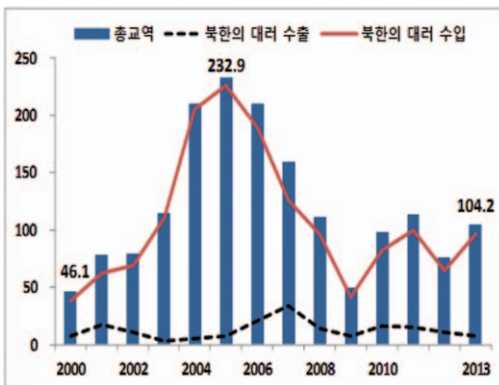
| 논 단 |

셋째, 시장경제 시험기(2000~현재)에는 양국이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적이다. 2000년대 이후 북·러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했고, 특히 최근 들어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계를 확대 중이다. 특히 푸틴 1기 출범과 2000년 ‘북·러 新 우호선린 협력조약’ 체결 이후 양국은 교역, 교통·물류, 농업 협력 등 다양한 경제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교역에 있어서는 2012년 푸틴 3기 정부의 ‘극동개발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라 북·러 간 교역관계가 긍정적인 변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 정상 회담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2005년 2억 3,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지만,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이후 2006년~2009년 사이 양국 간 교역량은 4배 가까이 급감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2013년 북·러 간 교역 규모는 2012년 7,600만 달러에서 37.3% 증가한 1억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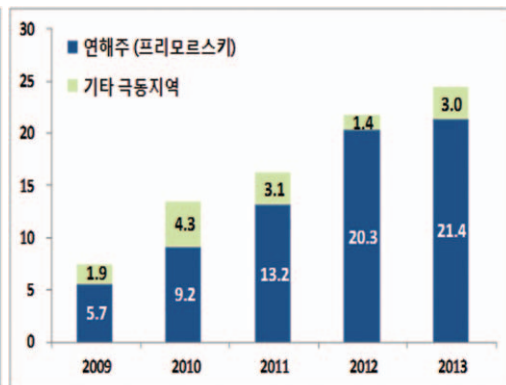
특히 최근 북한과 극동 러시아의 교역 증가가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극동 러시아 교역은 2009년 약 760만 달러(북·러 전체 교역 중 약 10.0%)에 불과했지만,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활성화 전략에 따라 2013년 기준 약 2,400만 달러(북·러 전체 교역 중 약 23.1%)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2000년대 이후 북·러 교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러시아 통계청(gks.ru), CEIC.

〈 북한과 극동러시아 간 교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러시아 극동 관세청(dvtu.customs.ru),
주 : 기타 극동지역(아무르 외 6개 지역).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2013년 러시아의 對北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철도 및 항만 부문에 대한 품목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어 철강, 비료, 원목, 차량 등이 비교적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석유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주요 수입품목으로 유지되었고, 2013년 한해에만 4,360만 달러(전년 2,300만 달러 대비 87.1% 증가)에 달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짚 크레인²⁷⁾(약 2,300만 달러, 전년도 수입 전무)을 비롯해 소방차(약 900만 달러, 전년도 수입 전무), 시멘트(약 400만 달러, 전년 50만 달러 대비 660.0% 증가)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이는 ‘나진-하산 철도연결’을 비롯해 나진항 내 러시아가 항만건설에 참여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2000년대 이후 북한의 對 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00		2005		2010		2013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차량	8.8	광물성 연료	198.0	항공기	36.0	광물성 연료	43.6
2	철강제품	5.9	기계류	4.8	광물성 연료	30.0	기계(짚크레인)	22.9
3	광물성 연료	5.6	펄프	4.8	목재	3.1	차량(소방차)	9.6
4	비료	3.2	철강제품	3.0	기계(보일러)	2.7	밀가루	3.9
5	목재	0.4	목재	2.5	지와 판지	1.8	시멘트	3.8

자료 : 러시아 관세청(customs.ru).

다음으로 최근 북·러는 경제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6차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갖고 북한의 부채 탕감 등을 합의했다.

〈 2000년대 이후 북·러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추진 현황 〉

시 기	주요 내용
2000년 3차 회의	- 북·러 나진-하산 철로 개보수 합의
2007년 4차 회의	- 북한 노동력 이용문제, 세관분야, 임업, 공업 협력 논의
2011년 5차 회의	- 북·러 간 가스, 철도 연결, 나진-하산 협력, 러시아 채무 탕감문제 논의
2014년 6차 회의	- 북·러 간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북한의 구소련 부채 99억 달러 탕감) · 2014년 6월부터 루블화로 교역결제, 북한 내 광물 매장지 공동 개발 합의 · 北, 북한 내 러시아 투자자들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허가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27) 짚 크레인(jib crane)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선회(旋回) 크레인으로, 주로 항만 하역을 비롯해 건축 재료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크레인임.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교통 및 농업 협력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극동 러시아와 북·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인프라 건설, 협동 농장 건설 등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시도 중에 있다. 교통·물류 협력에 있어서는 2008년 북·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협정서 체결 이후 2013년 철로를 재개통하여 양국 간 교통·물류 협력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사업은 지난 2001년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모스크바 선언'에 의해 합의되었고,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8년 이후 러시아는 총 3,000억 원을 투자해 총 54km 길이의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를 마쳤으며, 2013년 정식 재개통에 이르렀다. 북한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실현된 것을 강조하면서 북·러 간 경협이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러시아에 나진항 3호 부두 사용권을 50년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농업 협력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북한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연해주 북부지역에 약 1,000여 마리 규모의 소목장 건립을 위한 북·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는 북한과 극동 러시아 아무르 주가 농업, 건설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1,000ha 대규모 농장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협 확대를 위한 조치로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부문에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 최근 북·러 간 교통·물류 및 농업 경제협력 사업 추진 현황 〉

시 기	주요 내용
2013. 6	- 북·러(아무르), 경제협력협정 체결(무역, 임업, 농업, 건설 부문) - 북·러(블라디보스토크), 경제협력협정 체결(노동력 등)
2013. 8	- 북·러, 연해주 옥수수 협동농장개발 합작 체결
2013. 9	- 북·러,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구간 개통식
2013. 10	- 북·러, 아무르 합작농장 지속 합의(1천ha 이상 농지 / 콩, 감자 등) - 북·러, 무역·경제협조위원회 임업분과 18차 회의 의정서 조인
2013. 11	- 북·러, 노동자 교환협정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2014. 4	- 러, 시베리아산 석탄 9,000톤 북한 나진항 통해 첫 수출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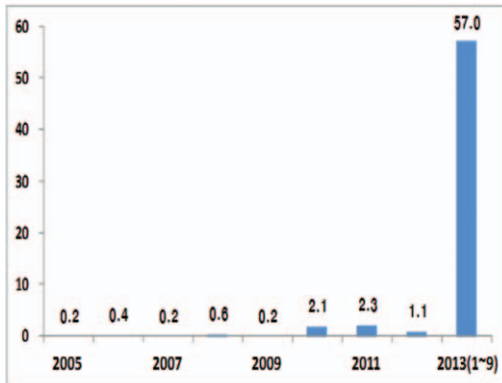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마지막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투자 및 노동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對北 투자²⁸⁾는 2005년 2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3년 9월 기준 5,7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4년 러시아는 舊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의 부채 가운데 90%를 탕감했고, 나머지 10%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 할 것을 밝혔다. 러시아는 對北 부채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베리아 철도(TSR), 가스관 연결 사업과 같이 극동 러시아 개발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부채 탕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동개발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건설·인프라 개발 현장에 북한 노동력 파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극동 러시아에 중국 노동자들의 진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기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2만 2,000여명에 달한다. 과거에는 주로 임업관련 노동자 송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자격증을 가진 숙련노동자(2013년 기준 762명, 전년 대비 2.8배 증가)²⁹⁾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러시아의 對北 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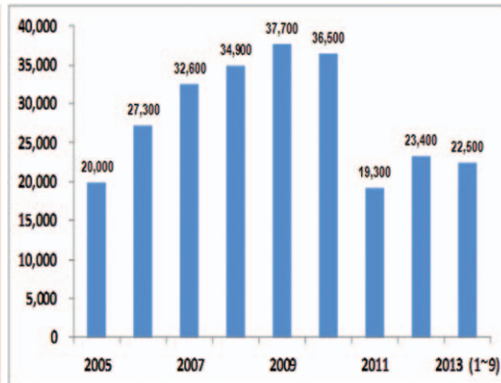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러시아 통계청(gks.ru), CEIC.

〈 북한의 對러 노동력 파견 추이 〉

(단위 : 명)



자료 : 러시아 이민국(fms.gov.ru), CEIC.

28) 2000~2004년 사이 러시아의 對北투자 누적액은 10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유정혁, 「2000년대 북한·러시아 경제교류협력현황」, p.14.

29) 자유아시아 방송, 2013.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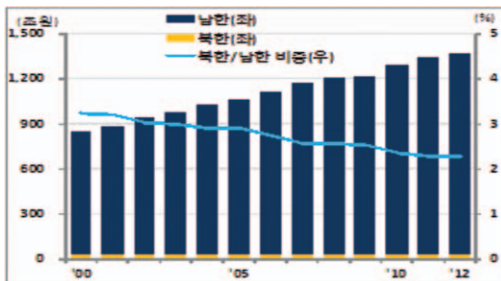
최근 북·러 경제협력 강화 배경과 전망

최근 북한의 對 러시아 경협정책의 특징은 북한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들어,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인 개혁·개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경제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2012년 북한의 실질 GDP는 30.5조원으로 남한의 2.3% 수준이며, 외자유치액도 2012년 7,900만 달러(누적액 16억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대내적으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과 기업소 부문의 인센티브와 자율권 확대 등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에 이어, 11월에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설치 등의 경제개방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러시아와의 교통·물류, 가스관 연결, 노동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경제회생 조치 및 대외경제 활성화 정책³⁰⁾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북한 입장에서는 과도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남한 및 북한의 실질 GDP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가격 기준.

〈 최근 북한의 외자유입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외자유입액	외자유입 누적액
2008	43.8	1,435.0
2009	2.0	1,437.0
2010	37.7	1,475.0
2011	56.0	1,531.0
2012	79.0	1,610.0

자료 : UNCTAD.
주 : 외자유입 누적액은 1987~2012년 실적임.

30) 최근 북한은 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의 무역성(대외교역), 합영투자위원회(외국자본유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중앙 및 지방급 경제특구 개발)를 통합하여 '대외경제성'을 신규로 공식 출범시켰.

한편 러시아의 對 북한 경제정책은 동 러시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 산업 분야 중심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발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프라 구축 등의 포괄적인 투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극동 러시아는 러시아 전체 면적의 36.1%에 달하지만 지역 총생산, 인구 모두 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1990년 806만 명→2012년 625만 명)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의 경제 문제 해소를 위해 ‘극동개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 국가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약 3,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극동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일본 등의 자본과 기술이, 인프라 연계와 인력은 북한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러시아는 북한의 인력은 물론 교역, 투자, 교통·물류, 농업 등 전 방위에 걸쳐 對北 경제 협력을 강화³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극동 러시아의 경제·사회상 〉

구 분	주요 내용
면 적	- 617만km ² (러시아 전체 36.1%) · 한반도의 28배
인 구	- 625만명(러시아 전체 4.5%)
지역 총생산 (GRP)	- 2조 7,000억 루블 (러시아 전체 5.4%)
자 원	- 농업 : 농지 7억ha - 어업 : 러시아 전체 어획량 2/3 수준 - 희귀자원 : 러시아 전체 1/4 보유
한국·극동 러시아 협력	- 교역 : 100억 달러(극동 전체 30%) - 투자 : 7,700만 달러 · 러시아 전체 직접투자 가운데 25%

자료 :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극동 관세청, 외교부 극동 시베리아 개황.

〈 2012년 극동 러시아의 경제·사회상 〉

구 분	주요 내용
총투자액	총 10조 7,094억 루블(약 3,000억 달러) - 연방정부 : 3조 8,169억 루블 - 지방정부 : 3,477억 루블 - 민간부문 : 6조 5,447억 루블
수행기간	- 2014~2025년
개발지역	- 극동 연방 관할구역 9개 구역 - 이르쿠츠크주 등 3개 지역
주요 프로젝트	- 시베리아와 바이칼아무르 철도 정비 - LNG 플랜트, 각종발전소 건설 등
주요 목표	- 2025년까지 역내총생산 2.2배 향상 - 역내 인구 100만명 증가 - 2011년 대비 수출 약 3배 확대

자료 :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개발’ 러시아 연방 국가 프로그램 정리.

31) 한편 북한도 2014년 6월 18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극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종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 개발 의지와 북한의 경제개선 의도가 맞물려 향후 북·러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역에 있어 최근 북·러는 교역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교역액 1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러는 교역 확대를 위해 루블화를 양국 무역 결제 수단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교통·물류 협력도 북·러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라 TKR-TSR(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남·북·러 3국 경제협력이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TKR-TSR이 연결될 경우, 한국은 부산항을 통해 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 협력도 러시아의 對北 부채 탕감을 계기로 남·북·러 가스관³²⁾ 연결 사업 실현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후로 주요 가스 수출시장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꾸려는 의도도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비롯해 철도, 전력망, 송유관 등 협력 사업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그 외에도 극동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농업 협력 기회도 존재한다. 연해주의 면적은 남한의 1.64배,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이며, 세계 최고 쌀 수확지인 중국 밀산(蜜山)과 마주하고 있어, 기후는 양호한 편이다. 향후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이어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연해주에서 생산된 곡물을 북한을 거쳐 철도로 운송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32) 2011년 11월 한·러 정상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2013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스관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음.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가격 문제로 한·러 양국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시사점

러시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일 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잘 활용한다면 동 이니셔티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방안의 실현을 위해 북·러 경제협력을 비롯해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방안은 상당 부분 일치하여, 남·북·러 협력이 용이할 것이다. 특히 SOC 인프라 구축, 교통·물류망 확충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남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은 물론, 통일 대박을 위한 사전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 참여 중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해, 남·북·러 경협 활성화를 위한 ‘3국 경제협력협약체(가칭)’ 구성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러 3국 협력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메커니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러 3국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제도 혹은 협정을 3국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일 후 한반도 내 TKR-TSR,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의 소유권을 비롯해 개발 이익 보전 차원에서도 사전적인 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지나친 對 러시아 의존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 경협에 큰 진전 없이 북·러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경우 북한경제의 對 러시아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통일 이익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이 어려우므로 남북경협 확대로 남·북·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統**